

우크라 난민 350만...2차 대전 이후 유럽 최악 위기

러, 민간인 의도적 공격 의혹...어린이·임산부 가리지 않고 희생 우크라이나 인구 4분의 1인 1천만명 피란살이...국의 탈출 급증

우크라이나는 전쟁 한 달 만에 생지옥이 됐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집계마다 다르지만 사망자 규모는 최대 수천 명에 이른다. 부상자 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집중된 요충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상황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산부인과 병원·학교·극장에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다. 수도·전기·난방이 끊기고 식수·식량도 고갈됐다. 이곳에 갇힌 민간인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약 35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 피란했다.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사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 캐리어 끝단 평범한 가족 박격포에 사망...사망자 최대 수천 명=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민간인 희생이 하루도 예외 없이 발생했다.

개전 직후 한때 러시아는 민간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이었다.

전쟁 초기부터 병원, 아파트 등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사망자가 쏟아져나왔다는 서방 언론, 인권감시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침공 당새째,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의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면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상 폭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 조기 장악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민간인 피해를 고의로 양산, 항복을 유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배경에서 집속탄, 열압력탄(진공폭탄), 백린탄 등 금지된 무기를 쏟아부었고,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도 표적을 무차별 폭격하는 '명탕구리 폭탄'을 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대피하던 엄마와 아이 둘이 대로에서 박격포 파편에 맞아 숨진 사례는 상징적이다.

현장에서 이들의 사망을 목격한 뉴욕타임스(NYT)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시신 사진을 신문 1면에 올리는 파격으로 전세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20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9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어린이 사망자 75명을 포함한 수치다. 부상자는 1496명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미 지난 16일 기준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만 약 3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레스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어린이 사망자 수가 15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어린이·임산부 가리지 않는 피해...민간인 대피시설까지 집중폭격=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의 상황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지난달 27일에는 6살 소녀가 러시아군의 포격 파편에 맞아 숨졌다. 잠옷이 피로 물든 채였다. 이달 2일에는 16살 소년도 갑작스러운 폭발에 두 다리를 잃었다.

이달 9일에는 이곳의 산부인과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 만삭의 임산부가 이 병원에서 들것에 실

려 나오는 사진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약 1000명이 대피한 극장, 400명이 대피한 예술 학교도 러시아군 포격의 표적이 됐다. 운행 중이던 버스는 물론이고 손님이 줄을 선 뺑집도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을 피하지 못했다.

음식이 동났고, 전기와 물도 거의 끊겼다. 눈을 녹여 가며 가까스로 식수를 조달해야 했다. 눈이 모두 마른 뒤에는 그마저도 구할 곳이 사라졌다.

이런 모든 참상을 주도한 러시아군은 오히려 "마리우폴에 끔찍한 인도적 재앙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복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받아내려면 먼저 파괴하라"며 거절하고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러시아는 3주째 마리우폴 포위한 뒤 '고사' 작전을 진행 중이다.

◇ 피란민 최대 800만명... "인도주의적 위기는 전략"=우크라이나에서 피란을 떠난 사람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에 달한다.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국외로 피란을 떠난 사람은 21일 기준 349만 명,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은

약 648만 명이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난민 규모 약 130만 명)의 규모를 배 이상 뛰어넘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최근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난민 규모가 8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행히도 인접국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피란민 208만 명을 받아들였고, 루마니아(54만명), 몰도바(37만명), 헝가리(31만명), 슬로바키아(25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23만명), 벨라루스(3765명) 국경을 넘는 난민도 있었다.

러시아가 이런 민간인의 비참한 현실을 고의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에밀 호카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NYT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의 한 전략이지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이 전략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겨울 북극바다 얼음 우리나라 면적 8배 줄어

지난 겨울 북극 바다의 얼음 덮인 해역이 과거 40년 중 가장 얇아졌다. 우리나라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넓이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국립빙설 자료센터가 위성을 활용해 집계한 북극해 해빙(海水)은 가을과 겨울을 거치면서 늘어나 지난달 25일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1488만km²로 1981~2010년 최대치 중 가장 낮은 77만km²가 적었다.

이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열 번째로 낮은 것이며, 바다 얼음 면적이 최대치를 기록한 시점은 세 번째로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극지 얼음은 계절에 따라 늘었다 줄어드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북극에서는 추운 겨울을 거쳐 3월께 최대치를 이르고 여름을 지나 9월께 최저치를 찍는다. 남극 주변에서는 북극과는 정반대 순환이 이뤄진다.

NASA는 극지 바다얼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해 25×25km씩 격자로 나눠 매일 촬영하고 바다의 15% 이상을 얼음이 덮고 있는 곳의 경계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979년 위성을 이용한 본격적인 해빙 관측이 시작된 이후 북극해의 얼음 면적 최대치는 10년마다 약 13%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있다. 얼음 최저치는 10년당 약 2.7%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필리핀, 내주 군사훈련
중국 견제 역량 강화

미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다음주 대규모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23일 AFP통신에 따르면 주필리핀 미국대사관은 오는 28일부터 12일간 양국 병력 9000명이 참가하는 위계임을 실시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위계임은 해상 안보 및 테러 대응, 재난시 구조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미 대사관은 설명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J)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는 움직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20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26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폴란드의 프세미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노벨평화상 수상자, 우크라 피란민 도우려 메달 경매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 "치료 받아야 하는 이들과 나눌 터"

러시아 언론인이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도우려 자신이 받은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놨다고 AFP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이자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인 드미트리 무라토프(60)는 지난해 자신이 수상한 노벨 평화상 메달을 경매에 부친다

고 이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유명한 이 상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는지 경매 업체에 문의 중"이라며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무고한 피란민, 다치고 아픈 어린이와 메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전과 포로 교환, 희생자 피란민에 대피로 개방과 인도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무라토프 편집장은 1993년 노바야 가제타를 공동 설립, 1995년부터 현재까지 편집장을 맡아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해왔다. 그는 독재에

맞선 노고를 인정받아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함께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했다"는 머릿기사를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쟁의 참상을 씬 없이 보도 중이다.

푸틴 정권이 이달 초 이른바 '가짜 뉴스' 유포자에게 최고 15년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러시아 언론에 재갈을 물린 이후에도 무라토프 편집장은 주 3회 발행을 고수하며 편집국을 지키고 있다고 미 위

싱턴포스트(WP)가 22일 전했다.

그는 WP에 "우리는 비통했다. 비통하면서도 부끄러웠다"면서 "우리 나라의 폭격기와 대포가 이웃 나라의 도시를 파괴한 이상 우리는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정권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언론인 수백명이 러시아를 떠난 이후에도 노바야 가제타 편집국 75%가 신문 발행을 멈추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WP는 전했다.

그는 "러시아 언론인의 마지막 남은 이(저항력)까지 뺏기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새 세기가 자라게 하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노바야 가제타 기자와 기고자 중에서 6명이 2000년 이후 살해됐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